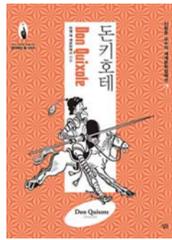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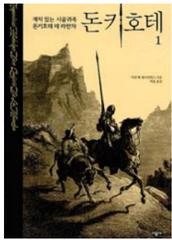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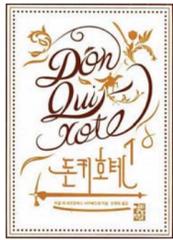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7월의 책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7월호

“무모한 도전·모험... 돈키호테를 배워야 할 때”

인간을 그린 최고의 소설로 극찬 ‘세말새봄짓’ 홈페이지 의견 교환 마지막 주엔 ‘복수다’ 진행도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7월의 책으로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선정됐다.

1605년 1권이, 세르반테스가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70세를 바라보는 1625년 2권이 나온 ‘돈키호테’는 자신을 방랑기사로 착각한 라만차 지방의 시골 귀족 돈키호테가 하인 산초, 명마 로시난테와 함께 펼치는 방대한 모험을 담은 풍자소설로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인간’을 그린 최고의 소설로 격찬을 받는 ‘돈키호테’는 지난 2002년 노벨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작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뽑혔으며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기도 하다. 수백년의 세월이 흘러도 통용되는 인간의 보편성을 다루고 있는 ‘돈키호테’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재조명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진석 교수는 “진짜 인간은 한 곳에 멈춰 머무르지 않고 아무 소득도 없이 보이는데도 애써 어디론가 떠나 건넌다. 건넌갈 그곳은 익숙한 문법으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아서 무섭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모한 도전과 모험이 등장한다. 대답하는 습관을 벗고, 질문하기 시작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닿지 않는 별을 잡으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진짜 인간이다. 진짜 인간

이 세상의 주인이다. 돈키호테를 배워야 할 때이다”는 말로 책 선정 의미를 밝혔다.

‘돈키호테’는 유명 작품인 만큼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다. 완역본은 열린책들과 시공사 두 출판사에서 나왔다.

2015년 나온 시공사 판 국내 대표 세르반테스 전문가로 스페인 함립원 종신회원인 박철 교수가 번역해 ‘돈키호테 1: 재치 있는 시골귀족 돈키호테 데 라만차’와 ‘돈키호테 2: 재치 있는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로 출간했다. 박철 교수는 출간 400주년이었던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돈키호테 1권’을 스페인어판 완역본으로 선보였다.

열린책들은 지난 2014년 고려대 스페인어학과 안영옥 교수 번역으로 완역본을 선보였다. 5년 여의 고증과 스페인 답사를 거쳐 집필한 작품이다. 두 출판사 모두 ‘돈키호테’ 삽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귀스타브 도레의 삽화를 실었다.

‘돈키호테’는 방대한 분량이라 쉽게 읽두기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축약본을 접하는 것도 좋다. ‘세계문학 축약본의 정본 컬렉션’을 표방하며 살림출판사가 펴낸 ‘생각하는 힘: 진형준 교수의 세계문학컬렉션’으로 만나는 ‘돈키호테’는 230여

페이지의 축약본으로 제2대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을 역임한 진형준 교수가 집필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비룡소판 ‘돈키호테’는 스페인 출신 작가이자 교수인 에두아르도 알론소가 소설 원본을 삼분의 일 분량으로 축소해 재구성한 책이다.

‘책 읽고 건너가기’는 ‘돈키호테’를 개인이 읽는 것에서 출발한다. 7월 마지막 주에는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과 최진석 교수가 ‘돈키호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복수다’가 열리며 내용은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지상중계된다. 또 8월 첫주에는 최교수가 읽은 돈키호테 이야기를 지역 작가의 그림과 함께 역시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자신이 읽은 ‘돈키호테’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새말새봄짓 홈페이지(www.nwna.or.kr),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만날 수 있다. 책을 읽은 이들은 책 읽는 중간이나 책을 다 읽고 난 후 새말새봄짓 홈페이지 게시판에 300자 정도의 독후감을 올려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극을 교환할 수 있다. 독후감을 올린 이들을 선별해 상품도 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향

‘코로나19’가 바꾼 뉴노멀시대 슬기로운 여름휴가·야간관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며 삶의 자전축이 바뀌고 있다. 관광과 여행 패턴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여행은 엄두를 못내고 ‘언택트’(비대면) 여행이 확대됐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특집 ‘예향 관광,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라’를 통해 ‘코로나 19’가 가져온 뉴노멀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여름휴가 방법, 관광산업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야간관광, ‘관광 남도’로 떠나는 식도락·삼립육 여행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에서 만날 주인공은 사물놀이에 63년 인생을 오롯이 바친 김덕수 명인이다. 김 명인과 사물놀이는 동의어이다. 5살 때 남사당 세미로 데뷔한 그는 사물놀이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 왔다. 최근 음악극 ‘김덕수전’ 공연을 마친 ‘영원한 광대’ 김덕수를 만나 신명난 63년 예술인생에 대해 들었다.

서양화가 한희원의 전시 소식도 전한다. ‘시를 쓰는 화가’로 알려진 한희원이 최근 시화집 ‘이방인의 소모-트릴리시에서 보낸 영혼의 일기’를 펴내고 광주 북항문화공간 갯마을에서 기념전시회를 열고 있다. 조지아공화국 트빌리시에서 10개월의 여정을 보내며 그려왔던 25호 그림 300여점과 광주에 돌아와 작업한 150호 작품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씨목씨목 남도 한바퀴 7월 여정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육당고을’ 영광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영광의 매력은 끝이 없다. 맨발로 황톳길을 걷고 환상적인 일몰과 노을을 감상하며 자연과 호흡

할 수 있다. 굴비와 한우, 장어, 모시잇송편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향화도향에 들어선 칠산타워와 칠산대교는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끄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한여름 영광으로 떠나보자.

‘화제의 문화현장’ 코너는 청년창업몰로 돌아온 광주시민회관으로 안내한다. 1970년대 광주공원에 들어선 시민회관은 당시 만화영화 상영했던 극장이자 한해 300쌍이 인연을 맺은 결혼식장이기도 한 지역 최초 복합문화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년 간의 리모델링 끝에 청년크리에이터들의 꿈을 키우는 산실이자 도심 속의 문화센터로 다가온 ‘광주시민회관-FoRest971’을 둘러봤다.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 마지막 시간. 도시의 품격을 완성하는 도시 디자인은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됐다. 국내는 물론 세계 취재 현장에서 만나 본 도시디자인의 대전장은 ‘사람 중심’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디자인은 공공 공간의 확보와 활용에 적극적이었던 점이다. 향후 광주의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어 갈 옛 상무소장의 새로운 변신을 기대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이외에 ‘머물고 싶은 전남 행복숲’ 진도 관매도 해송숲, ‘클릭 문화현장’ 통영 윤이상 기념공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랑 우리문화’ 등록문화재 담양 모현관, ‘문화특목’ 디자인 광주 색갈입은 아트숍과 문화상품, ‘예향이 만난 이사람’ 200경기 출장 기록 세운 광주FC 주장 여름과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다양한 작품 세계 ‘4인의 동행’

임팩트 명품갤러리 1주년, 8월 30일까지 특별 초대전

지나해 문을 연 명품백화점 ‘임팩트’는 별관 1층 엔젤하우스에 임팩트 명품갤러리(광주시 광안구 상무대로 509)를 함께 오픈했다.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초대전이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린다.

‘4인의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4명의 작가를 초청,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꽃’을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해 오고 있는 백애경 작가는 화사한 꽃들이 어우러져 몽환적 느낌을 전하는 ‘당신의 노래’ 시리즈 등을 전시한다. 전남대 예술대학원 미술학과에서 회화를 전공한 백 작가는 지금까지 16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이기원 작가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세상을 바라보다’ 시리즈를 비롯해 화강암, 철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환하게 웃음을 터트리는 아이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전남대에서 조소를 전공한 이 작가는 그룹 색채 회화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표정의 여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 한국화가 이선희 작가는 단아한 여인의 이미지와 붉은 꽃, 고양이가 한 화면에 등장하는 ‘오래된 문’을 선보인다.

조각·회화 작업을 병행하는 최순임 작가는 자유로운 소녀가 등장하는 ‘여행자의 노래’ 시리즈와 동화같은 느낌의 ‘산수유담’ 등을 전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애경 작 '당신의 노래'

한창우·고철민 ‘백서향꽃’, 박주찬 ‘민들레 흠뻑처럼’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 웹툰·포스터 부문 대상

올해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에서 한창우·고철민의 ‘백서향꽃’, 박주찬의 ‘민들레 흠뻑처럼’이 웹툰과 포스터 부문 대상을 각각 차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ACC 민주·인권·평화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발표했다.

심사결과 웹툰과 포스터 등 2개 부문에서 각각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최우수상 10편과 포스터 10편 등 총 20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

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공모전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민주·인권·평화 광주정신을 국내 외에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8년 시작했다. 첫 해는 동영상, 19년 웹툰, 올해는 웹툰과 포스터 등 2개 부문으로 공모를 확대했다.

ACC는 홈페이지에 수상작을 게시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10일 AC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작품은 ACC누리집·소책자·미디어월·누리소통망(SNS) 등 ACC가 운영하는 홍보 매체를 통해 교육,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BIG INNOVATION**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